



문자 속 링크, 누르지 마세요

택배·청첩장·부고 문자 속 인터넷 주소(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보낸 사람이나 공식 앱으로 확인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않아요.
2. 보낸 사람이나 공식 앱으로 직접 확인해요.
3. 눌렀다면 다른 전화로 112에 알려요.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

- ☐ 택배·결혼·부고처럼 바로 열어 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 ☐ 문자 안에 누르라는 인터넷 주소가 있어요.
- ☐ 모르는 번호나 해외 번호로 왔어요.
- ☐ 앱을 깔라고 하거나 정보를 넣으라고 해요.

이렇게 하세요

1.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않아요.
2. 택배는 택배회사 공식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요.
3. 경조사 문자는 보낸 사람에게 직접 전화해 물어봐요.
4. 이상한 문자는 지우고 번호를 차단해요.
5. 헛갈리면 118에 전화해 물어봐요.
6. 이미 눌렀다면 가족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해요.

112

사기가 의심되거나 돈을 보냈다면 바로 경찰에 전화하세요.

118

이상한 문자가 진짜인지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연락처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https://www.counterscam112.go.kr/campaign/index.html>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미싱·큐싱 대응 <https://www.kisa.or.kr/1020601> (검수일 2026-10-11)

이야기 속 인물은 지어낸 사람입니다. · 출처: 로가클래스 rogaiclass.com